

# 사랑노래

## 사

랑을 하였기에 이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유행가 가사가 있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사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다.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이야기라며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이별의 괴로움을 알 수가 있다고 한다.

시인 김소월은 떠나는 님의 길 앞에 진달래 꽃을 깔아놓았다.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관계도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에 좌절을 겪듯이 성관계에도 좌절을 겪는 사람이 있다. 우연히 만난 낯선 여성과는 쉽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행위가 가능하다.

그런데 막상 애타게 사랑하는 여성과는 발기조차 안되어 성관계에 실패를 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성행위 때는 타오르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고 무의미한 성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20대 후반의 K씨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녀와는 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났다. 소위 선생님과 학생의 신분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

대학 미팅 때 우연히 다시 만난 이후 서로 오빠, 동생으로서 다시 만남이 시작되었다. 만남이 길어지면서 결국은 결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K씨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병원에 온 까닭은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혼 여행에서 첫날 밤은 실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날까지 한번도 성관계를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신부는 울먹이며 신혼집에 들리지도 않고 친정집으로 가버렸다.

그녀와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면서 함께 잠자리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와 단둘이 있을 기회도 많았으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심지어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도 잠자리는 따로 하였다.

처음에는 동생으로 만난다는 느낌이 강했다. 만남이 거둬지고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드디어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을 하지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

막상 결혼을 생각하였을 때는 오히려 결혼 때까지 순결을 지켜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녀도 말은 하지 않았으나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그에게 있어서 신혼 여행은 지옥 여행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군대의 지옥훈련도 이보다는 약한 듯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괴곤해서' 라고만 생각하였다.

다음날도 실패하였을 때는 등에서 식은 땀이 나다못해 속이 타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몇 번을 다투었는지 사사건건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나 자신의 남성은 끝내 그녀를 외면하였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고민 끝에 술집 여성과 잠자리를 함께 해 보았다.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그곳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발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K 씨가 그 사실을 알렸으나 돌아온 답변은 냉소적이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에 관한 획기적인 중요한 연구를 하였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의 내면에는 의식적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강력하고 모순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며 원시적인 충동이나 바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성적만족을 얻고자하는 바람과 성적만족을 얻음으로써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함께 한다는 것이다.

마음 속에서의 이러한 갈등이 마치 악마와 천사의 싸움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갈등이 성관계의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물론 성관계가 실패한 경우에는 심리적 요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봐야 한다. 남성들이 발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인자들이 관여한다.

발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욕이 일어나야 한다. 성욕은 발기를 시키는 방아쇠와도 같다. 성욕이 없다면 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사정이 너무 빨라서 미처 삽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사정하는 경우도 있다. 성기내부의 고장으로 올 수도 있다. 기질적 이상으로 성관계에 실패하는 것이다.

발기력검사를 하였으나 기질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역시 생각대로 성기내부의 기질적인 이상보다는 심인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꺾을 때 마음 한 구석에서 죄책감을 느낀다. 꽃은 꺾지 않고 그 자리에 놔두어야 된다는 교육을 받아왔다.

K씨도 마치 백합꽃처럼 느꼈던 사랑하는 여인을 무참히 꺾어야 한다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오히려 발기부전을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심리적 극복과 자신감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재결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상대는 이미 마음이 떠난 뒤였다.

여성의 이해가 아쉬운 순간이었다.



문의전화 02)779-4400

이윤수비뇨기과 원장